

39장 - 주 은혜를 받으려

- (1)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 (2)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 (3)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 멘

273장 - 나 주를 멀리 떠났다

- (1)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 (2)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 (3)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 (4)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 (5)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후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11월 8일(금) 기도 담당 : 이희만 집사

2019년 11월 7일(목)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9장 다 같 이
기 도	이창진 집사
성 경 봉 독	호세아 7장 1~4, 7절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 하나도 없도다 』 엄재광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27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호세아 7장 1~4, 7절 >

- 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하며
- 2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 3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 4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궂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나라
- 7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없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11월 7일(목)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장중에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거룩한 길을 온전히 걷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백성의 죄악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물끄러미 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이며 또한 우리이며 제 자신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기적이며 무감각한 신앙인, 자신의 욕망에는 '뜨거운 화덕'처럼 달아올라 절제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저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조심스레 돌아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무감각해진 심령에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새문안교회를 세우시고 132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최초의 조직교회로서 한국교회에 거룩한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서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연약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짐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새문안교회에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사, 광화문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의 등불로 밝히 비추는 '거룩한 주님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정치·경제·문화·외교·국방을 회복시키시고, 세워 주실 분은 주님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시며, 북녘의 지하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허락하신 목회비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